

1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여행하셨나요?

- ① 갈릴래아 호수
- ② 가나안
- ③ 예루살렘
- ④ 데카폴리스

2.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??

- ① 모두 들어간다.
- ② 들어가지 못한다.
- ③ 한 명만 들어간다.
- ④ 선착순으로 들어간다.

3.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맞으면 O, 틀리면 X 를 그려보세요.

지금 끝지는

언제나

끝지가 이다.

지금은 첫째지만

끝지가 되는 이들도

있을 것이다.

☆ 우리친구들~! 새학기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우리친구가 기도합니다!!!



이잖아,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
 혼자 몰다 관한 곳에 기대지 말고, 내 어깨에 기대으면 좋겠어.
 날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
 괜찮아, 목에 준 힘을 빼도 좋아.
 난 널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.

이잖아,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
 옆에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한쪽 어깨를 빌려주면 좋겠어.
 서로가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
 괜찮아, 혹 그 사람이 널 실망시킬지라도
 난 내게 기대는 법을 더 알게 될 테니까.

이잖아, 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
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.

연중 제 21주일

"지금은 꼴찌지만
 첫재가 되는 이들이 있고,
 지금은 첫재지만
 꼴찌가 되는 이들이
 있을 것이다."

(루카 13, 30)




성당

학년

이름


서명

1독서 **여행** 

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 66,18-21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¹⁸ “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. ¹⁹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쏫, 활 잘 쏘는 루드, 투발과 야완 등 못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. ²⁰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 ²¹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.”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2독서 **여행** 

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2,5-7.11-13

형제 여러분, ⁵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. “내 아들이,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. ⁶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.” ⁷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.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.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? ¹¹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.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. ¹²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¹³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. 그리하여 절름거리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.
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**여행** 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3,22-30

그때에 ²²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,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. ²³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“주님,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²⁴ “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 ²⁵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, 너희가 밖에 서서 ‘주님, 문을 열어 주십시오.’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, 그는 ‘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.’ 하고 대답할 것이다. ²⁶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. ‘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,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.’ ²⁷ 그러나 집주인은 ‘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.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,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!’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. ²⁸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,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²⁹ 그러나 동쪽과 서쪽,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. ³⁰ 보라,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,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 오마리아수녀의
주일 복음 그림

- 바오로딸쿤텐츠

